

2012년 1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2. 1.26 15:00~16:40

주요 논의 내용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부위원장 선임 건

- 임영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 평가원 선임 건

- 국민대 손영준 교수, 한림대 최영재 교수, 경희대 노동일 교수,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김형숙 운영위원

▲ 회의에 배석할 방송사 측 참석 인사

- 보도본부장이나 보도국장 중 1인은 반드시 참석. 사전 요청시 담당 부장 참석. 사장도 위원회가 요청할 때 참석

▲ 시청자위원회 운영내규

- '제8조제2항' 등을 '제8조 제2항' 등으로 띄어쓰기 시정 요구(임영호 위원)
- 제6조 (추천 단체)에 '스포츠단체'를 넣자는 건의(최종준 위원)
- 상위법과 충돌이 안될 경우 제6조 제1항 제9호를 '경제단체'로 하고 제11호를 신설, '문화 및 체육 관련 단체'를 추가하는 방안(위원장)
- 제14조 (위원회 운영) 제1항 제3호 '사장의 요청이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는 규정이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김경모 위원), 특정 사안 발생시 위원회 의견을 참고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나 검토는 필요하다는 의견(최종준 위원), 악용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는 의견(한박무 위원)
- 운영내규는 조건부 통과, 정식 통과는 방송법 등을 참고하고 다음 번 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함(위원장)

▲ 위원회 활동방안

- 평가원과의 역할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김정연, 홍승용 위원)
- 위원회와 평가원과의 영역 구분은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듯함. 평가원이 미디어 전문가적인 시각에서의 모니터라면, 위원회는 선량한 시청자 입장 및 각 분야 전문가들이 보고 포괄적으로 의견을 제시, 제작진에게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위원장)
- 위원회와 평가원은 상호 보완적이어야(이상목 위원), 초기 단계이므로 운영해나가

면서 보완해야(홍승용 위원)

- 모두 독립적인 기관이라고 보아야,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미로 판단(위원장)
- 시청자평가원은 개별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위원회는 시청자 입장에서 총의를 모으는 것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임(김경모 위원)
- 타사의 경우 시청자위원회 위원 각자의 의견을 제시해 방송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됨(한박무 위원)
- 시청자평가원은 위원회 하부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업무(김정연 위원)
- 조만간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됨(위원장)

▲ 활동비 지급방안

- 위원회 정례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모니터한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낼 경우 참석으로 간주할 예정(위원장)

2. 뉴스와이 모니터 내용

▲ 이상목 위원

- 뉴스속보의 차별화 필요 : 뉴스전문채널은 뉴스 속보, 전문성이 중요. 뉴스 집중 취재, 취재뒷마당 등을 강화해야. 다른 방송사보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필요

▲ 홍승용 위원

- 뉴스와이는 프라임타임이 몇시인지 알기 어려움. 비즈니스맨의 경우 아침시간 6시나 밤 11시가 프라임타임. 핫뉴스를 빨리 받고 싶어하는 시청자를 고려해야
- 핫이슈, 취재뒷마당이 현재 토일 집중되어 있는데 평일 6, 7시 시간대로 옮겨 핫이슈를 다뤄서 차별화시켜야
- 사회이슈가 복잡해지다보니 특정인의 인터뷰는 위험할 수 있음. 다수의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토론방식도 차별화될 수 있어
- 스포츠, 문화, 예술 특성화도 좋은 방식이 될 것. 젊은 층을 끌어들이려면 미국 NBA 소개, 영화 소개 등 편 기능을 추가해 시청자의 고급화 양상에 맞춰야
- 화면처리 문제에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음. 화질이 좋지 않음. 카메라 촬영시 건물 여기저기 비추는 것도 혼란스러워 보이며 중요 뉴스의 경우 팩트에 초점을 맞추기 바람

▲ 최종준 위원

- 스포츠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실시간 취재 기능이 가장 탄력적인 뉴스와이에서 비인기종목, 생활체육, 학교체육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뤄주기 바람. 국민 체육의 근간을 다지는 시리즈로 장기 기획 등도 좋을 것

-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뉴스와이의 화질이 떨어져 보임. 다른 HD에 비해서 색상이 처지는 느낌, 카메라 워킹이 흔들거리고, 자막이나 그래픽 기술력도 부족해 보임. 준비가 안된 느낌
- 유튜브 기능을 연결한다면 보다 대중적인 정보 확산에 도움이 될 것
- 기술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는 관계자들의 계획을 듣고 싶음
- 다음 회의에 관계자 배석하도록 추진(위원장)

▲ 김경모 위원

- 편성 문제에 대한 지적. 주말프로그램의 경우 토일 재방송 비율이 매우 높음. 주말판적인 특색이 없음. 뉴스와이가 지향하는 편성의 원칙 및 주말판적 특색을 어떻게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회사 측의 입장을 듣고 싶음
- 다음 회의에 관계자 배석하도록 추진(위원장)

▲ 이석구 위원

- 마찬가지로 회사 측의 편성 계획을 공유하기 바람
- 사회적 소수자의 뉴스들이 배치되는 것이 필요
- 글로벌 뉴스가 적어 보임
- 기술적으로 영상이 산만하고, 집중하기 어려워 보완할 수 있는 방안 필요

▲ 임영호 위원

- 뉴스와이에서는 자막에 시계가 잘 안나오는 경우가 있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상시적으로 뉴스가 나올 때나 광고, 자체 채널 광고를 할 때도 시계 보는 기능을 구현하기 바람. 경쟁력 확보 및 시청자 배려 차원

▲ 김정연 위원

- 아침 9시 정도까지는 시간을 볼 수 있게 시계를 띄워 줘야
- 뉴스 끝나고 앵커들이 시청자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시정 바람
- 영어뉴스의 경우 원어민 영어는 미국식 영어가 아니라 너무 딱딱하게 들림

▲ 한박무 위원

- 일간지 'TV 가이드'에 뉴스와이가 소개되지 않고 있음. 조선일보에는 뉴스와이 가이드가 없고, 문화, 세계일보는 지상파 TV 가이드 옆에 타사는 동열로 실어주는 데 뉴스와이는 찾아 볼 수 없음.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선 신문 'TV가이드'에 반드시 소개되어야
- 뉴스와이 간판도 찾아볼 수 없음. 대외적으로 뉴스와이를 알려야
- 1월 10일 안철수 교수 미국 방문 관련 보도의 경우, 공중파 3사와 타사 마이크는 보였고 뉴스와이는 현장에 있었음에도 마이크택이 없어서 시청자들에게 알릴 기

회를 놓쳤음. 마이크택을 반드시 붙여 뉴스와이를 홍보해야. 뉴스와이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 민주통합당 지도자 선출대회 중계방송의 경우, 타사 화면은 다양한 반면 뉴스와이는 위원장만 계속 잡고 있었음. 한명숙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소식이 타사에서는 자막이나 SMS를 통해 알리는데 뉴스와이는 침묵. 타사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감각, 숙련도를 빨리 높여야 채널인지도, 충성도 높아질 것
- 특히 올해는 총선, 올림픽, 핵안보정상회의, 엑스포, 대선 등 빅 이벤트가 산적해 있어 운명의 한해가 될 것

▲ 임상혁 위원

- 25번이 굉장히 좋은 번호여서 잘될 것
- 편성표를 보면 프라임뉴스 시간대를 알 수 없음. 시간대별 타깃 시청자 차별화를 위한 편성 차별화가 필요(10시는 주부 겨냥 생활 정보, 밤 10시는 직장인을 위한 종합 뉴스 등)
- 시청률 높이려면 돌발영상 같은 대표 프로그램 만들어야
- 홈페이지가 일방향이어서 시청자 의견 제시 불가. 개선 바람. 시청자게시판, 영상 제보 기능도 추가되어야
- 영상 편집 자막이 어설픈 경우가 많음
- 뉴스 편성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많음. 마카오가 휴양도시로 바뀌고 있다는 기획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스포츠 뉴스가 나오는 등 간지가 없는 문제. 스포츠 뉴스가 중간에 나오기도 하고 갑자기 경제뉴스가 나오는 경우도 있음

▲ 차경애 위원

- 뉴스와이 방송에서 어떤 기자는 '뉴스와이'라 하고 어떤 기자는 '연합뉴스'라고 해서 시청자들이 혼선. 통일돼야 시청자들이 알 수 있을 것
- 뉴스채널이다 보니 다양성 부족. 학교 폭력, 생활 체육 문제 등을 다루는 다양성을 살릴 필요
- 뉴스채널이면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앵커나 기자들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들어간 리포트가 많음. 보완되어야
- 이주 여성 관련 보도, 학교폭력 문제를 다룬 청명학원 관련 보도, 건강권 관련 의료 민영화 관련 보도는 좋았음. 각 나라의 일기예보 보도도 좋음
- 포토뉴스, 영어 뉴스는 다른 방송사에는 없는 것 같은데 좋음

▲ 위원장

- 뉴스와이 화질이 별로 안 좋음
- 영어뉴스의 경우 우리나라 공식 명칭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인데 '사우스 코리아'로 지칭하는 건 잘못. 개선되어야. 또 영어뉴스에 자막 맞춤표가 없어 계속 한

문장으로 보일 수 있어 혼란

- EBS의 '한국기획'이란 프로그램이 뉴스와이에서 상영되고 있는 것을 봤는데 뉴스와이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수 있음. 좋지 않아 보임
- 연예인(이효리)이 출연해 소 도살 관련 발언을 하는 등 비전문가가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얘기하는 건 선정적이라고 볼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음
- 설 추석 연휴 귀성 전쟁 보도는 모든 방송사가 포맷이 정해져 있고 누구 위한 방송인지 알 수 없음. 뉴스와이는 정도는 작았지만 똑같이 답습. 오히려 도로공사상 황실을 연결해 도로공사가 브리핑한 것은 깔끔했음
- 자료화면을 삽입할 경우 반드시 자료화면이라고 밝혀야 뉴스 보도의 신뢰성과 사실성을 확보할 수 있음
- 김정일 사망 관련 뉴스는 뉴스와이가 부각될 수 있는 기회였는데 반복의 연속일 뿐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음. 폐쇄된 사회를 읽는 방법 심벌의 해석이 문제. 운구 행렬이 권력 실세라는 보도의 경우 실체를 확인할 수 없고 8명이 운구했다는 사실만 보도하면 충분. 한동안 안보이면 숙청됐다는 등 추측 보도는 문제. 기존의 틀을 탈피해야 후발주자로서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

※ 회의 정리

- 다음 회의에서는 보도국장, 기술 담당, 편성의 주안점 및 가야할 방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관계자 참석 요망
- 주간 편성표는 매주 메일 발송 요청
- 회의록 내용은 홈페이지 게재 전 전 위원들에게 보내 확인받고 게재 바람
- 정례회의는 매달 네번째주 목요일로 2월 회의는 23일 개최. (끝).